

오피니언

光日春秋

임동욱



'아침의 노래' 혹은 '봄의 노래'라고 자주 인용되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극시 '피파가 지나간다(Pippa Passes)'를 읽으면 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극시에서 베니스의 공장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녀 피파는 일년 중 단 하루뿐인 휴가 날 아침에 봄을 노래한다. 피파가 부르는 "계절은 봄이고/ 하루 중 아침/ 아침은 일곱 시 / 진주 같은 이슬 언덕 따라 땀하고/ 종달새는 창공을 날다/ 달팽이는 가시나무 위에/ 하늘은 하늘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평화롭다"를 듣고 난 후, 마음의 못된 사람들과 회개하고 삶의 참 행복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한편 T. S.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희망과 생명의 달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노래했다. 이 장편 서사시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어와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잠든 뿌리를 깨워낸다/ 차라리 겨울은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구근으로 가발 쓴 생명을 키워오니"라며 시작된다. 이 시를 읽다보면 만물이 소생한다는 것은 축복이고 희망이지만, 작고 연약한

새싹들이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은 잔인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대학 캠퍼스가 가장 예쁘고 활기찬 계절도 봄이다. 봄이 펼쳐내는 자연의 향연에 걸맞게 전 세계 대학들의 공통정신인

자유와 진리 역시 한껏 기지개를 켜기 마련이다.

이처럼 예쁘고 좋은 계절에 자유의 상징이자 진리탐구의 전당인 대학 캠퍼스에서 잔인한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 개인에게 내재된 악마성의 발현 때문에 고귀한 생명들이 죽음의 질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덧없이 스러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 스텝 엑스로 대표되는 황당한 동영상이 전 세계 인문을 유린하고 말았다. 아마 역사는 2007년 4월을 또 다시 잔인한 달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잔인함을 생래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잔인함

을 묘사한 예술 작품 역시 적지 않다. 단테의 신곡과 이를 표현한 로댕의 지옥의 문은 대표적인 예이다. 전함이 좌초된 후 물과 식량을 위해 동료들을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으며 생존했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제리코의 메뒤즈 호의 뗏목을 보면 인간의 잔인성은 그 끝이 없다는 생각조차 든다.

인간은 절망과 좌절을 할 때 잔인하고 잔혹해진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 위에 새겨져 있다는 "이 문을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리라"는 말처럼 이미 지옥에 온 자들

을 슬프다..."는 내용으로 조승희의 끔찍했던 삶을 응시하고 안식과 평화를 기원하는 편지들은 성숙한 응시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참사를 통해 사랑과 응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배워야 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5년 전의 미군 장갑차 사건처럼 사랑과 응서가 없었기에 온 나라를 증오와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들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아울러 참사 초기에 우리가 보인 닫힌 민족주의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열린 민족주의로 가는 길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물론 참사를 복합하는 미국의 방식이 좋아 보인다고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이는 인종융합의 나라가 생존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나라마다 죽음을 대하는 문화가 다르고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굳이 희생자들을 위해 금식하자면 32일 대신에 33일 간 금식하자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 더 나아가 민족의 일이라 사죄하는 것 대신에 같은 인류로서 애도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어야 한다는 말은 하고 싶다. 처참하게 유린당한 봄날의 캠퍼스에서 숙절없이 스러진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빈다.

〈충주대 행정학부 교수·한국대통령학 연구소 부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봄날의 조승희와 교훈들

은 희망을 버린 자들이다. 조승희 사건은 바로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린 인간이 좌절과 절망 속에서 택할 수 있는 행동의 극단이다. 희망을 버리지 않을 때 인간은 그 잔인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랑과 응서를 할 수 있다.

이번 버지니아 공대 참사를 통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잃은 것 이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상징의 하나가 봄날의 캠퍼스에 마련된 33인의 추모석 앞에 잇따라 놓여 있는 편지들이다. 특히 "너를 향한 사람들의 가슴 속 분노가 응서로 변하기를...네가 그렇게도 절실히 필요했던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고

시설

기아차 경영 '적신회' 노사 지혜 모을 때다

기아자동차 경영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1천253억원에 달해 지난 98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고, 올 들어서도 경영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아차의 어려움은 환율하락에 따른 재산상 악화와 파업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환차손만 무려 8천1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다 노조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이 7천300억원을 웃돌았다. 환율 하락과 노조파업이 기아차 경영에 치명타가 된 것이다.

기아차가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올해야말로 노사관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노사관계로는 난국을 헤쳐나갈 수 없을뿐더러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수 차례에 걸친 파업으로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는데도 성과급을 지급하려며 또다시 파업을 하는 노조가 어디 있겠는가.

기아차 노사는 최근 준공된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을 주목해야 한다. 그곳 3천100명의 근로자들은 월 42만원의 임금과 연간 30만대 자동차를 생산한다. 반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6천700명이 월 평균 400만 원을 받고 연간 30만대를 만든다. 이런 생산성과 고임금 구조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기업은 없다.

광주지역경제에 미치는 기아차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광주공장이 지역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아차의 위기는 곧 광주경제의 위기라 할 수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사주나 노조원의 회사 일본이나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기업이다. 현재의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가야 할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아차 경영을 걱정하는 것이다.

기아차노사는 눈 앞의 밥그릇 챙기기 보다는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수술대 오른 '고무줄 양형' 결과 기대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법조계 전문가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양형위원회는 부패 범죄와 성폭력 범죄, 선거 범죄, 소년 범죄, 환경 범죄 등에 대한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들쭉날쭉한 '고무줄 양형'이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무줄 양형'의 폐해는 심각하다. 비슷한 사건인데도 일부 재판부나 판사에 따라 일반인들이 보기에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의 편차를 보여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재판과 정치인 등에 대한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심 선고 형량이 2심에선 대폭 줄어들어 드는 사례도 많았다.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2심에서 징역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풍토에선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논란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 '일단 항소부터 하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겨 항소 남발을 초래했다. 재판이 왜곡되면서 판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이 뒤늦게나마 '고무줄 양형'의 폐단을 인정하고 대대적 수술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양형 기준이 마련되면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학연과 지연을 동원한 로비나 전관예우 등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묻지마 항소'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양형의 적정성이다. 편차를 줄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획일화, 표준화에선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는 등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양형위원회는 우리의 재판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 뿌리깊은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동화 전남도는 농·축산업을 비롯한 1차산업의 비중이 27.6%로서 전국평균의 3배가 넘는 반면 제조업인 2차산업의 비중은 9.7%에 불과,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농지구성 비율 역시 전국평균 20%보다 7% P가 더 많은 27%를 기록하고 있다.

기고 조건호 휴일과 야간에도 인 손을 비벼가며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사를 비롯해 취약지역에 기동배치돼 세면도구와 같이 입을 속옷도 없이 열을 이상 현장에서 진화하느라 여념이 없는 조종사, 위험을 무릅쓰고 공중에서 낙하해 불구덩이에 뛰어든 공중진화대원들의 아찔한 순간들을 볼 때마다 산림항공 본부장으로서의 안쓰럽고 사고위험 때문에 마음 졸이며 가슴을 쓸어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위기의 농촌을 구할 수 있는 해법 조 단칸차만은 않은 일이다. 실형 농업을 포기하고 농토를 팔려고 내놓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매매가격도 생각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남지역 농지가격과 거래량은 전국 최하위수준이다. 지난해 공식 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23%였지만 전남은 겨우 9%에 그치고 있다. 거래량이나 매매가격 역시 수도권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것이 현실이다.

산 사랑 시작은 산불예방부터 산불이 났을 터지듯 발생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 국토가 산불로 얼룩질 것 같아 두렵고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4월 초 현재 300건의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소중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

無等鼓 1935년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나일론은 20세기 10대 발명품에 꼽힌다. 누더기처럼 기워야 했던 면 제품에 비해 거미줄보다 가볍고 강하다. 질긴 '기적의 실'로 인식됐다. 6·25전쟁 직후인 지난 1953년 우리 나라에 수입했던 나일론은 순식간에 국내 소비자들을 사로잡았다. 나일론 섬유를 수입했던 섬유업체는 대기업 반열에 올라섰으며 나일론 제품은 최고급품으로 인식됐다.

휴대전화 수리비 폭리 취하는 건 아닌지 의문 아이가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떨어트렸는데, 액정이 고장나 얼마 전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서비스센터 직원은 "휴대전화 본체가 손상된 것으로, 수리하려면 수습민원이 필요합니다"고 했다.

교육지원 봉사 '튜터링(Tutoring)제도' 실시했으면 중등학교 시절 한번의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소에 다녀온 청소년들이 적잖다. 또 교육서비스의 기회가 적은 소년 소녀 가정과 극빈층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